

해남 'AI 슈퍼클러스터' 부지 공급 계약 지연

퍼힐스, 총 15조 중 1조 유치 불구 '부지 우선협상권' 6개월 연장 요청 道, 수용...세부 진행상황 추가 논의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사업의 첫 단추 격인 '부지 공급 계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협상권자인 투자사 '퍼힐스(FIR HILLS)'가 이달 말로 예정된 시한을 앞두고 요청한 우선협상권 자격 연장을 전남도가 수용했기 때문이

다. 향후 투자 유치 상황에 따라 부지 공급 계약을 비롯한 사업의 성과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 투자 그룹 스톱 팜 로드의 자회사인 퍼힐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부지 우선 협상권자 지위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전남도가 퍼힐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해남군과 함께 체결한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A)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전남도는 퍼힐스에 MOA 체결 이후 6개월 동안 부지 우선 협상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슈퍼클러스터 허브는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일원 120만평에 2028년까지 7조원, 2030년까지 8조원 등 총 15조원을 투자해 3GW 이상의 AI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퍼힐스 측은 이날 전남도와 면담에서 투자 유치 활동 등 경과를 설명하고 오는 24일 소멸되는 부지 우선 협상권자 지위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퍼힐스는 현재까지 10억달러(1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3GW 규모의 데이터센터·ESS 구축 사업 가운데 선도시

업으로 100MW 규모 투자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엔드 유저(End-user·최종 사용자)와도 적극 접촉 중인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AI 슈퍼클러스터의 중추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엔드 유저를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퍼힐스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 사항도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퍼힐스 측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전기료 할인, 규제 제로 등을 골자로 한 RE100(재생에너지 10

0% 사용) 산단 특별법 추진,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기업 친화적 재생에너지 정책까지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투자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운영은 엔드 유저 유치와 글로벌 기업의 투자에 따라 성과가 갈리는 만큼 전남도는 실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퍼힐스 측에서 AI 슈퍼클러스터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번에 연장된 시한 내에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서원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상수도 누수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姜시장, 2호선 공사 여파 상수도 누수 피해 점검

금호동 상인들, 보상·안전 확보 요구 姜시장 "보상 대책 다각 검토" 약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발생한 서구 금호동 상수도 누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상인들과 피해 대책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직경 600mm 노후 상수도관의 이음부가 이탈돼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인근 상가 12곳이 피해를 입었다. 강 시장은 공사 현장과 피해 상가를 둘러보며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했다. 이후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강 시장은 또 상인들의 통행로 불편 등 안전 우려에 대해 통로 확대 및 전등 추가 설치 등 빠른 시일 내 시정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즉각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상인들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에 이어 침수 사고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충분한 피해 보상, 보상금 신속 지급,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좁아진 출입구 앞 통로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인은 "시민 공익을 위해 상인들에게 피해를 줌은 아니지만 직격탄을 맞는 상가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누수 피해를 입은 기계는 침수된 차와 같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상각 등을 이유로 상인들의 주장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하려 하고 지급 기간

도 1년여 소요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현실과 차이가 있는 법적 보상 체계는 상인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광주시는 상수관로 누수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전남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전문가 자문 등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자문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현재 노후화로 인한 이음부 이탈 가능성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중심으로 노후관로 교체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도시철도 교통약자 대피로 확대

전국 최초 폭 990mm로...개정안 입법예고 차량·대피로 간격은 105mm로 기준 강화

광주시는 12일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mm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격도 225~300mm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mm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격은 105mm까지 좁혀 발 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며 향후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영광·무안에 160MW 에너지저장시설 설치

전남개발공사, 육지부 ESS 입찰 진출 지방공기업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남개발공사는 12일 "전력거래소 주관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 참여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2개 사업(총 160MW 규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따른 출력 제어 및 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 시행 제도로 전력거래소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관련기사 9면 전남개발공사는 탐솔리뷰와 컨소시엄을 구성, 영광군-무안군에 각 80MW 규모로 2025년 말까지 에너지 저장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및 계통포화율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의 부족한 전력 계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ESS 중앙계약시장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에너지 사업 관련 노하우와 역량을 키워 전문 에너지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재진 (880915-*****)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은 2025년 8월 5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로 하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채권 또는 수증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5년 643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김나현, 김대형

○한정승인수리일: 2025년 8월 5일

○공고기간: 2025년 8월 13일 ~ 2025년 10월 13일

○연 락 처: 광주 남구 효우로60번길 10, 303동 104호 (노대동, 송화마을유원지) (010-3257-7066)

- 1) 임동5거리 8층 135평 은행감각가 6억1,600급매가4억1,000(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 2) 용자금(14억)만 안고 그냥 이전해가세요 산수동5거리 4층건물 대지150평 연건평380평 주차15대
- 3) 대인광장로타리 상업지 188평을 급매합니다 평당1200만원(조정됨)입니다
- 4) 운암자이(구주공)등5,000여세대 대로변코너 대지202평 5층622평 승강기1,주차11 급매45억
- 5) 드라이브스루 마케팅용빌딩 남부권 관문, 아파트1만세대 생활권 6차선대로변 대지606평 지하1층 지상3층 승강기1, 에스컬레이터 각층, 주차92대 가능 급매90억(용자75억) 현금15억 인수 가능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사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움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